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이기려면 결집할 수 있게 하라!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을 누볐다. 적나라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선거운동하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을 사방에 만들어 놨는 지도 모른다. 오직 진박을 당선시킬 요량으로 대구에 가고, 흔들리는 표심의 한복판인 부산을 가는 게 너무 속 보이는 것인데도 상관없다.

이걸 비판해야 할 언론들은 이미 장악된 지 오래다. 요식적인 사실 비판으로는 꿈쩍도 안한다. 오히려 종편들은 교묘한 편집으로 이번 총선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로 만들고 있다. '지든 이기든'이 아니라, 이기는 데 올인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으로서 외려 뻔뻔스럽게도 절박하다. 원칙과 상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품위와 공정성도 사라진 지 오래다. 죽어도 이겨야 하고, 내 편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대대손손 권력을 거머쥌 수 있는 개헌 가능 의석을 만들 수 있고 박근혜법을 가로막는 국회선진화법을 없앨 수 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밝아도 완전히 밝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보일 정도다.

그에 비하면 야권은 차라리 한가롭다. '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권이 아닌 개인'들만 있는 듯이 보인다. 국민의 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대의 패착은 정치 파트너로 문재인을 택하지 않고 김한길 또는 '오로지 반문' 세력을 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호남을 뉴 DJ로 채우겠다는 비전을 토로하던 천정배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공천된 지금 무슨 말을 호남인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김한길·천정배·안철수는 유의미한 제3당은커녕 본인들의 재산 여부도 불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분열로 인한 어부지리를 수도권에서 고스란히 박근혜 정권에게 줬다는 비난을 안을 것이다. 아무리 소신을 밝히도 오직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더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단한 김종인 은 '오직 이겨야 한다'를 부르짖었다. '강한 야당'을 얘기했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의 정치 경력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았고 빠른 기간 내에 당을 안정시켰고 지지율도 올랐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정원을 만능으로 만든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확 올랐던 지지율까지 온갖 공천 논란으로 흩날리고 있다. 시스템 컷오프로 질린 의원들이 승복하면서 받았던 박수도 잠깐이었고, 공관위와 비대위가 일으킨 이른바 '정부적 판단'에 의한 인위적 컷오프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지자들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건가? 경쟁력이 높아서 이길 만한 현역 의원들, 게다가 지지자들 결집 역량이 뛰어난 의원들을 잘라내고 나면 어떻게 표를 호소할 것인가? 정정래 의원을 위시로 하여 최소한 여섯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온갖 잡음만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다. 출마자 대안도 없이 컷오프를 하고 나서 무슨 수로 한 석이라도 더 이긴단 말인가?

야권은 '호남 + 민주화 세력 + 이른바 친노, 그리고 플라자 알파'를 합해야 이길까 말까 하는 세력임을 잊어서 안 된다. 어느 한 세력 하나 알아서 안 된다. DJ와 노무현, 어떤 확신을 주었던가?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 큰 협력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한 발 더 전진한다, 비록 완벽하게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민생의 아픔에 공감한다, 앞선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쳐진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평화 자체가 안보다, 미래 세대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등의 철학이 내면화되어 있고, 그 어떤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뢰해 주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내어 적극적으로 지지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무자비한 탐욕, 무능한 국정, 불통의 독선, 그리고도 무한대의 권력욕을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

적극적 지지자들이 마음 놓고 결집할 수 있게 하라. 젊은 세대가 기꺼이 부모 세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라. 호남 토박이가 수도권 호남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하라. 착하면서도 유능할 수 있음을 믿게 하라.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게 하라. 아, 절박하다!

〈진 국회의원·건축가〉

의료칼럼

내게 맞는 건강검진



김 동 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원장

자일 경우, 직업군이 걸리기 쉬운 질병은 꼭 검사받아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건강검진은 비쌌수룩, 그리고 많은 종목을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건강검진시 대부분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필요 없이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건 건강을 위협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환자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화, 위해 환경 노출, 잘못된 생활습관의 정도가 심해져 중대 질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젊고 건강한 20~30대는 질병에 대한 대비를, 40~50대는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60대 이상은 치매와 뇌졸중 검사에 초점을 맞춘 연령에 맞는 맞춤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20~30대는 평생 지켜야 할 건강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시기다. 본인의 가족력, 생활습관 등에 따른 현재 질병 유무와 질병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해야 한다.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앓았던 가족이 있고 비만하거나 흡연과

음주 같은 생활습관이 있다면 향후 혈관 질환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이나 혈당, 혈압 등을 체크해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암 검진 권고 연령보다 일찍 암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또 검진을 통해 간염(A형, B형, C형) 등의 항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예방접종(A형, B형)을 받아야 한다.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가끔씩 한곳의 병원을 정해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층으로 분류되는 40~50대 남성의 경우 건강검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국내 성인 남성의 암 발생률 1~4위를 차지하는 위암·대장암·폐암·간암 검사도 꼼꼼히 받아야 한다. 5년에 한 번꼴로 권고되는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내시경도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 발견됐다면 1~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40~50대 중년층이 건강검진에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뒤야 할 것은 관상동맥 검사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에 해당하는 남성은 심장의 관상동맥 상태를 볼 수 있는 관상동맥 CT를 찍는 것이 좋다. 또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10년에 한번 씩 뇌혈관 CT와 자기공명영상을 찍어 혈관 건강을 점검해볼 것을 권한다. MRI, CT 같은 검사가 부담스럽다면 경동맥(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통과하는 혈관) 초음파를 받으면 동맥벽 색이나 협착 등 뇌혈관질환을 파악할 수 있다.

60세가 넘으면 중대 질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암 검진 등과 함께 치매심리 검사가 꼭 필요하다. 기억력 감퇴나 치매가 우려된다면 뇌 MRI를 찍어 보는 것도 좋다. 또한 60대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 위험도 크다. 뇌질환의 의심되거나 65세 이상의 고령, 가족 중에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흡연·당뇨·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요인이 있다면 1~2년을 주기로 뇌 MRI(형태검사)와 뇌 MRA(혈류검사), 혹은 뇌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기 고

의료관광 중심도시 광주를 꿈꾸며



최 용 언 광의료 산학협의회 사무총장

하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지원법을 통과해 본격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의료관광객은 서울(58.1%), 경기(15%), 인천(6.6%)로 서울·경기도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동남권 크루즈와 메디칼투어를 표방하는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구, 그리고 순천만과 여수알바다를 활용한 전남 등 많은 지자체들이 의료관광객의 유치와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들여다보면 일부 지자체의 상품은 아직까지 1~2개 지역 거점 병원과 해운대, 자갈치 시장 같은 관광지 결합된 패키지, 의료 관광을 주창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부상하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중심으로 성형·피부·심장·정형외과·치과 등 높은 수준의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들이 있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지

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한국광기술원과 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 연구지원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광(光)기반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과클러스터단지 조성, 생체 의료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의료분야에서 큰 성과와 토대를 이뤄냈다. 광주의 중소기업들은 의료분야 진출을 위한 충분한 연구개발 경험과 사업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주요 사업은 많지만, 해외의료 관광산업 육성 역시 한국 사회가, 특히 광주가 중점 추진해야 필수 주요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캄보디아 및 네팔 광주병원 건립, 의료관광객을 유치 위한 통역지원사업 등을 시행중인 광주가 보다 더 차별화된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 내 해외의료 관광만을 전담하는 컨트를 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의료기관, 관광산업 전문가, 해외관광객 유치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모여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품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 광주의 관문인 KTX 광주송정역에 의료관광 상품을 알리고 지역 의료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 또한 절실하다.

가까운 미래 역점을 두는 자동차산업 100만대 시대 개막과 해외 의료관광 중심도시 광주로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크루즈, 증편된 KTX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진료와 관광을 결합한 경험과 사업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세계적 수준의 공연도 관람하고 다음날 정음식 생가와 양동시장을 한가롭게 거닐며 광주의 다양한 모습에 반하는 모습을 꿈꾼다.

지역 숙박업소는 빈방이 없고, 해외 관광객 민박을 운영하는 가정집들이 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광주, 그리고 돌아가는 중국관광객들의 손에는 의료기술 때 체험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들려있어 해외 수출도 늘어가는 광주, 타 지역 의료분야 중소기업들이 광주로 이전에 지역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소망해 본다.

社 說

치열한 공천 경쟁 그래도 혼탁·부정은 안 된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하다. 이번 주말까지만 최종 후보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히 경선을 앞둔 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은 본선택에 대해 확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더민주는 광주 서갑, 북을, 광산갑 등 3개 경선 지역에서 16~20일 사이 통신사가 제공한 유권자 5만 명의 안심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예비후보들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풀가동, 선거구민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내일부터 20일까지 단수 후보 확정 지역인 동남을과 서구를 제외와 광주 6곳의 선거구에서 '숙의(熟議) 배심원단' 경선을 치른다. 선발전 배심원들이 후보의 정책 토론과 질의응답을 지켜본 뒤 분과별 논의를 거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은 숙의배심원단 평가(70%)와 여론조사(30%)가 혼용된다.

경선이 임박하자 예비후보 측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와 SNS를 시도 때도 없이 무더기 발송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대 비판과 헛소문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에서도 아직 정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연일 경쟁이 불꽃을 튀기며 불붙조짐이 비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조사 결과 여수갑이 가장 혼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매수나 기부행위, 불법 여론조사, 흑색선전 가능성까지 지적됐다.

이처럼 두 야당의 경쟁이 과열되면 서 분위기도 점차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부정 선거 단속 주무기관인 선관위는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경선 단계부터 불법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유법이 눈에 띄면 곧바로 신고하는 참여정신으로 가장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뽑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인간은 지지 않았다” 이세돌의 아름다운 패배

“질 수도 있다.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니므로 (승패를 떠나)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다.” 신안 비금면 출신 이세돌(33)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대국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피를 말리는 ‘세기의 대국’에서 아름다운 투혼과 도전정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인류 대표’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의 마지막 대국에서 졌다. 28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1집 반 정도의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아쉬운 패배였다. 이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번 대국은 인공지능의 승리(4승 1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다섯 차례의 대국에서 이 9단이 보여 준 도전과 겸손, 치열한 투혼은 가히 ‘이세돌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다. 그가 3국까지 내리 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인간이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했

다. 일각에선 사람 한 명과 컴퓨터 1200대 간의 불공정 대결이라는 불만도 쏟아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패배를 깨닫고 인정한 뒤 담담하게 말했다.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 이 인간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세돌 어록’에 추가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4국에서 기적의 1승을 거두었다. 집념의 승부였다. 실패는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가치인지 새삼 일깨워 주었다.

마지막 대국은 일부러 불리함을 무릅쓰고 후를 들고 도전했다가 석패했다. 그리고 그는 또 마이크 앞에 섰다. “어느 순간부터 바둑을 즐기고 있다. 의문이 들었다. 이번 알파고와의 대국은 원 없이 마음껏 즐겼다” 이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이세돌의 ‘아름다운 패배’는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無 等 鼓

다. 책을 구입한 곳은 동명동 동네 서점 ‘파초모종’. 독립출판물, 아트상품 등을 파는 정갈 조그만 서점에서 이런 저런 책자를 뒤적이다 소개방은 게 바로 이 책이었다.

우연찮게도 같은 날, 게스트하우스 ‘미소리’ 매니저를 만나 독립출판 이야기기를 하니 반색을 하며 책자를 건네줬다. 40여 개국을 여행했던 그녀 역시 지난해 여행지에서 만난 이들의 뒷모습만을 모아 만든 책 ‘뒷모습’을 펴냈다.

다. 나는 볼 수 없고 오직 타인에 의해서만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 각자의 사연들과 감정을 묻어 있는 뒷모습이 좋아서’ 혼자 만든 책이었다.

양림동 ‘LITE LIFE’에서 산 비정기 간행물 ‘사표’는 만나는 사람마다 ‘탐내는 책’이었다. 가슴에 사표 하나쯤 모두 품고 싶었다. 결국은 꺼내 놓지 못한 건 바로 할머니였다. 책에는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맛있는 소면을 끓여 주던 할머니와 각각의 요리법에 대한 추억도 담겼다.

할머니가 쓴 메모와 육성 녹음을 토대로 손녀딸이 함께 만든 책 ‘할머니의 요리책’을 뒤적이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나는 볼 수 없고 오직 타인에 의해서만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 각자의 사연들과 감정을 묻어 있는 뒷모습이 좋아서’ 혼자 만든 책이었다.

할머니의 요리책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 |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
| 편집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